

다니엘서 - 번호 187

사자의 계시: 파니움에서 최종 봉인까지

Jeff Pippenger

2024-04-17

예수님께서 예언적 진리의 봉인을 떼실 때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상징되시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분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봉인을 떼어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 진리들은 백사십사천을 인치는 때가 시작될 때 그분이 봉인을 떼어 밝히신 메시지와 일치하며, 바로 그 동일한 기간의 끝에서도 다시 한번 그러하였다. 그 진리들은 다니엘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제시된 메시지와도 일치한다.

그분이 그 진리의 봉인을 떼어 그것을 십사만 사천에게 드러내실 때, 그분은 줄에 줄을 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신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 진리들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백성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이냐고 그에게 물었을 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누가복음 17:20, 21.

귀신들도 믿고 떠난다. 단지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먹는 물질적 음식이 몸의 일부가 되듯이, "진리"는 너 자신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13절에서 15절의 역사 속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는 곧 임할 일요일 법령과 관련된 진리들의 봉인을 떼시고, 그 진리들은 다가오는 위기에 앞서 지혜로운 처녀들의 이마에 인친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마태복음 16장의 증언을 잘 알고 계셨고, 그분의 가이사라 빌립보 방문은 다니엘의 파니움에 대한 증언과 일치했으며, 또한 그분은 그와 그의 제자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십자가의 그림자 아래에서 있었던 그 사실이 마지막 때 그분의 백성의 역사 속에 곧 임할 일요일 법령의 그림자를 표상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꾸짖기 시작하여 말하였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영혼과 바꾸어 무엇을 내줄 수 있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인자가 그의 나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6:21-28.

첫째로—따라서 ‘최초 언급의 법칙’에 따르면—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한다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점이다. 화이트 자매는 십자가가 또한 멩에임을 분명히 말한다. 멩에와 십자가는 인간의 개인적 의지를 상징하며, 모든 것은 그 의지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데 달려 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탱하는 능력은 죽임을 당해 ‘기둥’에 매달린 어린 양이다. 죽임 당한 어린 양은 낮은 육신적 본성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상징하며, 그 죽은 육체가 매달리는 ‘기둥’은 곧 의지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뜻을 항상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심으로써 어떻게 이기는지를 본으로 보이셨고, 그 일을 이루시고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으셨다. 이김의 상징은 기둥에 매달린 죽임 당한 어린 양이다. 이 모든 진리는 베드로로 상징되는 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엑서터 천막으로 대표되는 필라델피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그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 성의 이름,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내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12, 13.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기는 자는 시몬 바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새 이름을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기둥에 달린 어린 양이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될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길 때,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그들도 하늘에 있는 곳들에서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워터타운 천막으로 대표되는 라오디게아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리니, 나도 이기고 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20-22.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진리는, 사람들이 그분이 이김의 본을 보여 주신 그대로 이겨야 한다는 진리였다.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들은 하늘에 앉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었을 때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곳에 함께 앉히셨느니라. 에베소서 2:5, 6.

개인적 책임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진리를 제시한 후, 유다 지파의 사자는 마지막 때를 다루는 또 다른 진리를 덧붙였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자기 나라에 임하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6:26-28.

백사십사천의 인침이 종결되는 시기에 유다 지파의 사자가 한밤중의 외침 기별의 봉인을 떼실 때, 죽음을 맛보지 않을 이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때 그분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마지막 때의 백성인 백사십사천에게 특별히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방문하신 지 몇새 후, 유다 지파의 사자는 다가오는 십자가의 위기 속에서 제자들을 굳세게 하려는 진리를 드러내셨고, 더 중요하게는 곧 임할 일요일 법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몇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는데,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런데 보니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함께 말하고 있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보라, 밝은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였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매우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셨다.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까지 너희가 본 이 환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자들이 예수께 여쭙어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셨다. "엘리야가 참으로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는 이미 왔으나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였다. 인자도 그들에게서 이와 같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다. 마태복음 17:1-13.

이 본문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는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십사만 사천을 인치는 진리들의 봉인을 떼고 계신다. 이는 '때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그분은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지적하시고, 그 경험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기를 거부하는 한 부류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를 한 부류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로 제시하셨다. 그다음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세대를 대표하고 있음을 제시하셨는데, 그 세대에는 2001년 9월 11일에 봉인 해제가 일어난 때로부터 그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살아 있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때 그분은 영광 가운데 계신 자신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 주셨고, 그와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 봉인이 풀린 인침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모세와

엘리야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2023년 7월에 봉인이 풀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곧 모세와 엘리야가 줄에 줄을 더하듯, 십사만 사천의 인침을 상징하는 것으로 확립되었다. 세 제자들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심히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 제자가 본 그 환상은 말세에 있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환상을 나타내며, 그러므로 다니엘이 10장에서 본 환상과 동일하다.

나 다니엘만이 그 환상을 보았으니,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큰 떨림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숨으려고 달아났다.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 이 큰 환상을 보았는데, 내게는 더 이상 힘이 남지 않았으니,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었고, 기력을 완전히 잃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말씀 소리를 들었고, 그 말씀 소리를 들을 때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깊은 잠에 빠졌다. 보라, 한 손이 나를 만져 무릎과 두 손바닥을 짚게 하며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가 내게 이르되, 크게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말하는 말을 깨달으라. 그리고 일어서라. 이제 내가 네게로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이 말을 내게 할 때에 내가 떨며 일어섰다. 그가 또 내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아. 네가 깨닫고자 하여 마음을 정하고 또 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렸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 10:7-12.

마태복음 17장의 변모의 환상은,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부활할 때 일어나는, 다니엘서 10장의 거울을 통해 보는 듯한 환상이다. 그 환상과 그에 수반된 메시지는 두 부류의 예배자들을 드러낸다. 하나는 엑서터 장막에, 다른 하나는 워터타운 장막에 있으며, 이는 예레미야의 '조롱하는 회중'과 요한의 '사탄의 회당'이다. 다니엘의 증언에서 그 환상이 미친 영향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라. 예수께서 나아오사 그들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환상은 두 경우 모두에서 청각적이기도 하고 시각적이기도 했으며, 두 예에서 모두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두 증언 모두에서 힘을 주기 위해 '만지심'이 필요했다.

변모의 환상은 여러 가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증거였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 몇몇은 인자가 자기 나라에 임하여 오는 것을 볼 때까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변모 사건은 "인자"가 그의 나라에 임하여 오심을 보여 주는 한 예증이었다.

변화산에서 모세는 죄와 사망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증인이었다. 그는 의인의 부활 때 무덤에서 나올 자들을 대표하였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땅에 살아 있을 자들, 곧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자들, 그때에 '이 죽을 것이 불멸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 자들을 대표하였다. 고린도전서 15:51-53. 예수께서는 '두 번째로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실 때 나타나실 모습대로 하늘의 빛으로 옷 입으셨다. 이는 그분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9:28; 마가복음 8:38.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구주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 산에서 장차 올 영광의 나라가 축소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그리스도는 왕이요,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변화되어 하늘로 옮겨질 자들을

대표하였다. 시대의 소망, 421.

인침의 진리는 다음을 포함한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십사만 사천은 죽지 않는 자들이며 엘리야로 상징되고, 요한계시록 7장의 큰 무리는 죽는 자들이며 모세로 상징된다. 한 부류는 요한계시록 18장의 첫 번째 음성으로 부름을 받고, 다른 부류는 요한계시록 18장의 두 번째 음성으로 부름을 받는다.

그 만지심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더 교훈하시며 말씀하셨다.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 환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변모의 환상, 곧 거울의 환상과,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환상과, 셋째 하늘에 있을 때 바울이 본 환상과, 에스겔이 본 바퀴 속의 바퀴들의 환상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까지 유다 지파의 사자에 의해 봉인되어 있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 환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두 증인의 부활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들은 2023년 7월에 부활할 예정이었다. 그때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신실한 자들의 두 무리에게 봉함된 메시지가 열릴 것이며, 그것은 세상의 종말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거울 같은 환상의 맥락 속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인침의 메시지는 또한 요한계시록 1장 첫 세 절의 맥락 속에서 제시될 것이며, 그곳에서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나타내는 의사소통의 연쇄가, 인침의 메시지가 14만 4천에 들 후보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단계별 과정으로 펼쳐 보인다.

그 단계적 과정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천사 가브리엘에게, 요한에게, 교회들에게로 이어졌다. 신성하신 아버지에게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아들에게로,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가브리엘)에게로, 타락한 피조물(요한)에게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세상)에게로. 이 다섯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처음 언급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그중 한 단계라도 부정하는 것은 전부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 계시에 따라 제자들이 예수께 여쭙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참으로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는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였느니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서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세례 요한과 계시자 요한의 예언적 역할은 인침의 기별의 한 요소이며, 워터타운 텐트에서 사무엘 스노의 기별을 무시하기로 선택한 이들은 주께서 택하기로 하신 사람들을 주께서 택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자들을 대표한다. 1989년에 선택되어 1776년으로부터 220년 뒤인 1996년에 그 기별을 처음 발표하고, 2001년 9월 11일에 셋째 화가 도래했음을 확인한 파수꾼이었으며, 2020년 7월 18일의 최악의 기별을 제시했던 그 음성은 인침의 기별의 일부이고, 그의 역할은 세례 요한으로 대표된다.

이 연구는 다음 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굳게 수호하며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은 공동체에 확립된 믿음을 동요시키려는 자들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셨다.

나는 세 단계, 곧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동행하던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돌 하나라도 옮기거나 못 하나라도 건드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이다. 이 기별들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중요성을 지닌다. 영혼들의 운명은 그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달려 있다." 나는 다시금 이 기별들을 따라 내려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체험을 얼마나 값비싸게 치르고 얻었는지를 보았다. 그것은 많은 고난과 치열한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마침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단 위에 세우셨다. 나는 몇몇 사람이 그 단에 다가와 기초를 살펴보는 것을 보았다. 어떤 이들은 기뻐하며 즉시 그 위에 올라섰다. 다른 이들은 그 기초에 흠을 잡기 시작했다. 그들은 개선이 이루어지면 단이 더 완전해지고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바랐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살펴보겠다며 단에서 내려와 그것이 잘못 놓였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나는 거의 모든 이가 그 단 위에 굳게 서서, 내려간 자들에게 불평을 그치라고 권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 건축자이시며, 그들이 그분을 거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그 견고한 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회고하고, 한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불평하며 단을 떠났던 사람들 가운데 몇몇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겸손한 표정으로 다시 그 위에 올라섰다.

나는 그리스도의 초림의 선포로 시선이 다시 돌려졌다. 요한은 예수의 길을 예비하도록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았다. 요한의 증언을 거절한 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으로 유익을 얻지 못했다. 그분의 오심을 예고한 그 기별에 대한 그들의 반대는 그들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 주는 증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처지에 두었다. 사탄은 요한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을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끌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을 오순절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자신들을 두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유대인의 제사와 규례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보여 주었다. 위대한 희생 제물이 드러졌고 받아들여졌으며,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지상 성소에서 하늘 성소로 옮기셨는데, 거기에는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속죄의 유익을 부여 주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완전한 흑암 속에 남겨졌다. 그들은 구원의 계획에 관하여 가질 수 있었던 모든 빛을 잃었고, 여전히 그들의 무익한 제사와 예물에 의지했다. 하늘 성소가 지상 성소를 대신하게 되었으나 그들은 그 변화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증보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행적을 공포 속에 바라본다. 그리고 그분이 치욕적으로 학대당하신 역사를 읽으면서, 자신들은 그분을 사랑하며, 베드로처럼 그분을 부인하지도, 유대인들처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시험하셨다. 온 하늘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지극한 관심으로 지켜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십자가의 이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던 많은 이들이 그분의 오심에 대한 기쁜 소식을 조롱하였다. 그 기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것을 미혹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하며 교회에서 내쫓았다. 첫째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둘째 기별로부터도 유익을 얻을 수 없었고, 하늘 성소의 지성소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한밤중의

외침에서도 유익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앞선 두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 주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도 아무 빛도 보지 못할 만큼 그들의 깨달음이 어두워졌다. 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 이름뿐인 교회들이 이 기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알지 못하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중보로부터도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한다. 무익한 제사를 드리던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예수께서 떠나신 구역에 무익한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사탄은 이러한 기만을 기뻐하며 경건한 모습을 가장하고, 자신의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로 일하면서 이들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끌어 그들을 그의 울무에 단단히 묶어 둔다. 그는 어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또 어떤 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속인다. 각기 다른 마음에 작용할 다양한 미혹을 준비해 두었다. 어떤 이들은 한 가지 기만을 무서워하면서도, 다른 기만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사탄은 어떤 이들을 강신술로 속인다. 그는 또한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거짓 개혁운동을 통해 그의 영향력을 온 땅에 퍼뜨린다. 교회들은 들떠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영의 역사이다. 그 열광은 사그라들 것이며, 세상과 교회를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남겨 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교인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에도 정직한 자녀들을 두고 계심을 보았다. 재앙들이 쏟아지기 전에,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이들 교회에서 불러내어져 기꺼이 진리를 받아들일게 될 것이다. 사탄은 이것을 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주어지기 전에, 그는 이 종교 단체들 안에서 흥분을 불러일으켜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는 정직한 이들을 속여 하나님께서 아직도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게 하려 한다. 그러나 빛은 비칠 것이며, 모든 정직한 이들은 타락한 교회들을 떠나 남은 무리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초기 저술, 258-261쪽.